

2010.05.11 미래정책연구실

□ 한국 및 일본의 구제역 발병 및 대책

1. FAO (유엔식량농업기구) 보도자료 (2010. 4. 28) 주요 내용

- FAO는 최근 구제역이 한국 및 일본에서 연달아 발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구제역 감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음.
 - FAO 수석 수의사인 Juan Lubroth는 한국 및 일본 같은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구제역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함.
-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교역 금지 및 질병통제등의 조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됨.
 - 영국의 경우 2001년 구제역 발병으로 농업, 축산, 관광분야에 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측됨.
- 현재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더욱 심각한 상황임.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.
 - 구제역 바이러스는 발굽이 있는 동물, 즉 소, 양, 염소, 돼지등에 발병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써 고열 및 입과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질병이나, 사람에게에는 전염되지 않는 질병임.

□ 낙농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온난화는 무관

1. FAO (유엔식량농업기구) 보도자료 (2010. 4. 20) 주요 내용

- 지난 4월 20일 FAO에서 발표한 보고서(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Dairy Sector)에 따르면, 낙농분야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.7%에 불과하다고 발표됨.

- 지난 2006년 보고서에서는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전세계 발생량의 18%에 이른다고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켰음. 이는 가축이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음.
- 최근 분석에서는 자료 업데이트 및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으며, 소, 돼지, 가금류 등의 다른 축산분야에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방출량을 추정할 계획임.
-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분석되는 온실가스 중 메탄가스의 52%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배출되고 있으며, 아산화질소는 선진국이 27%, 개도국이 38%를 배출하고 있음. 이산화탄소의 경우 선진국이 21%, 개도국이 10%를 배출하고 있음.